## 연료의 유속에 따른 디젤 연소기의 NOx 저감 효과

임종연, 김영채\*, 신명철<sup>1</sup>, 김세원<sup>1</sup> 한양대학교; <sup>1</sup>생산기술연구원 (yckimy@hanyang.ac.kr\*)

디젤연소기에서 연소과정 중에 발생되는 NOx는 산성비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된다. NOx에 대한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NOx의 저감이 시급하다. 그에 따른 디젤연소기에서 NOx생성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이 다년간 연구되어 왔고 많은 방법들이 소개 되었다. 그중에서도 연소실 내부로의 연료의 주입에 앞선 연료의 혼합이 NOx 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실험하였다. 고정조건으로써 연소기의 온도는 800℃, 연료비(O2/C8)는 0.5, O2/N2비율을 0.5로 고정하였다. 변화조건으로써 GHSV를 변화시켜주어 체류시간에 따른 그 효과를 관찰하였다. 부분산화반응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O2를 가하고 동시에 촉매역할로 산화철을 주입하여합성가스의 선택도를 조사하였다. 생성된 기체농도 분석은 TCD가 장착된 GC로 하였고, 컬럼은 carboxen을 사용하였다.